

의료인 피해 없는 법안 마련 촉구 안 협회장 등 의료단체장, 의원과 간담회

의료사고 보상 및 피해 구제 법안을 추진 중인 이기우 의원과 안성모 협회장, 김재정 의협 회장, 유태전 병협 회장 등 의료계 단체장간 오찬 간담회가 5월 4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열렸다.

이 의원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안 협회장은 이 의원이 발의 예정인 '의료사고 보상 및 피해구제법안'과 관련,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의료인이 피해보지 않는 법안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 협회장은 ▲의료 사고시 의료인의 형사 처벌특례 범위에 환자 사망을 배제한 것은 의료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며 ▲무과실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나 공단이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의료인이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협회장은 또 이 의원이 추진중인 법안 명칭 자체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법률안'이라면서 이는 의료소비자 입장만 강조한 느낌이라고 법안명칭 변경을 제안, 이 의원도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 협회장은 "법안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한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치과의로 전문가가 위원으로서 배제될 수 있고 다양한 의견 청취가 곤란한 만큼, 위원회 위원을 15명 선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추진 법률안에는 '피해구제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을 포함 위원은 9인 이내로 하고 변호사, 법관, 검사 등 법률전문가와 소비자 대표의 경우 3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는 실정이다.

“구강보건 예방처치 삭감 자제를” 안 협회장, 공단·심평원 관계자 잇따라 면담

“치과에서도 보험진료만으로 의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안성모 협회장, 김재영 보험담당 부회장, 조기영 전 보험이사는 5월 16일 신언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계속되는 진료비 삭감으로 일부 진료가 왜곡되는 면이 있다. 특히 젊은 치과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잇몸치료, 치석제거 등 국민 구강보건 예방을 위한 진료에 대한 삭감을 자제하고 보험진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 협회장은 또 “이러한 제도개선은 치과 의사들이 돈을 벌고자하는 목적보다 결국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평원의 제도개선과 함께 공평하면서 아량있는 심사를 요구했다.

신언항 원장은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의사들도 이해되지 않는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무조건적 삭감보다 요양기관에서 잘못 신청하는 항목에 대해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시정이 안될 시에 삭감하도록 하는 체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 등은 또 심평원 원장을 면담한 후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간담회를 개최,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장성 확대 정책 시 치과계의 급여확대 우선순위를

반드시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협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 보철급여화는 아직 시기상조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석제거 등 예방쪽이 먼저 급여화 돼야 한다”며 “보철의 경우 보건소와 연계한 노인치사업, 시도지부 차원에서의 노인치사업 등 봉사차원의 보철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으로 이를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성재 이사장은 건보 보장성 확대와 관련 “보건의료계가 함께 건보 보장성 확대에 대해 대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학문적으로 검증받고 의료계도 합의해야 하고 공단에서 실무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건보 장기비전을 위해 복지부에서 정책구상을 하기보다 정치권에서 독립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 집행부는 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공단과 치협 두 단체 모두 반대라는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협조기로 했다.

한편 안 협회장 등은 심평원 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양정강 심평원 치과부문 상근심사위원을 면담하고 현재 신입 집행부의 임원 현황과 심평원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능동적인 재정 자립화에 노력” 치의학회 초도이사회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는 조치훈 기사의 말을 명심하고 있다. 임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합심해서 성취한 바를 이루자.”

치의학회(회장 안창영)는 5월 10일 서울의대 임상연구동 가든뷰에서 상건례를 겸한 초도이사회를 열고 3년간의 운신에 첫 발을 내딛었다.

안창영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면서 “치의학회가 독립하고 보다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정보통신이사, 법제이사, 국제이사가 신설되는 등 이사진을 개편해야 한다”며 “치협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오는 20일 분과학회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해 의결기관으로 전환하고 치의학회사회는 집행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 무임소이사의 경우 주무사와 함께 팀제로 운영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깊이 이

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아울러 “치의학회가 예산을 치협에 의존하는 등 재정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데도 노력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재정 자립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이와 함께 “개원의가 치의학회장이 돼 미심쩍어하는 사람도 있으나 많은 관계자들이 축하인사를 통해 믿는다는 말을 전해왔다. 개원의지만 25년동안 학회 일을 해왔다”며 “치협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차가 크다는 걸 느꼈다.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설득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길을 찾아나가겠다. 목표한 바를 하나씩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기존에 분기별로 1회 개최하던 이사회를 매달 개최기로 했다.

치협 등 보건의료인 ‘담배와의 전쟁’ 선포 김경선 전 문화복지이사 복지부장관상 수상

안성모 협회장과 김재영 부회장, 김현순 문화복지이사 등 치협 관계자들이 5월 31일 보건의료인의 금연운동 선언식에 참가, 보건의료인 행동 강령 채택에 동참했다.

제18회 세계 금연의 날(31일)을 맞아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심리학자,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 약사회, 간호협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등 보건의료인 단체를 포함하는 10여개 금연 관련 단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제18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5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보건의료인 금연운동 참여 선언식을 거행하고 보건의료인 행동 강령을 채택했다.

이들은 행동강령에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 설 것과 환자 등이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담

배 규제와 금연을 각 단체의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담배회사의 재정적인 지원 등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지원 거부 ▲각 단체들이 소유 중인 건물에서 담배상품 판매와 판촉활동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캠페인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치과계 금연운동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외적인 금연운동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김경선 직전 문화복지이사 등을 비롯한 금연 유공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치협, 한의협,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12개 금연 관련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금연패널 전시, 금연상담, 구강촬영, 기초건강검진, 금연침시술 등의 캠페인을 벌였다.